

‘청춘와락’으로 청년 마음건강 돌본다

전주시, 마음치유 상담 프로그램 본격 추진

전주시는 학업 스트레스와 취업 준비, 사회적 관계 단절 등으로 심리적 무기력을 겪는 지역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돌보기 위해 2026 전주형 청년 마음치유 상담 프로그램인 ‘청춘와락(樂)’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주만의 특화된 ‘단계적 회복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1:1 상담과 오감을 자극하는 체험형 치유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청년들이 정서적 소진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운영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18세~39세 청년으로, 시는 3월부터 11월까지 연간 총 9기에 걸쳐 기수별 10명씩 총 300여 명의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기수별로 4주간(주 1회) 진행되며, ‘청년이음전주’(완산구 현무길 31-5)를 거점으로 운영된다.

먼저 ‘원예 치유(3·6·9월)’ 과정은 생명력 있는 식물을 매개로 지친 마음을 돌보는 시간으로 채워진다.

참여자들은 꽃바구니와 수경식물 화분 등을 직접 제작하며 스트레스의 원인을 이해하고, 식물을 가꾸는 과정을 통해 자기 수용과 정서적 안정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나만의 치유 정원을 만드는 활동은 청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성취감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로마 치유(4·7·10월)’ 과정에서는 MBTI 향기 심리학을 활용해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참여한 청년들은 그림책 ‘감정 호텔’을 활용한 테라피를 통해 억눌린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게 되며, 후각적 각인을 통한 개인 이미지메이킹 등 전문성 강화 전략도 함께 이뤄진다.

‘마크라메 공예 치유(5·8·11월)’ 과정은 손을 움직이는 섬세한 작업을 통해 심리적 이완을 돕는 것이 핵심으로, 청년들이 링 도어벨과 드림캐처, 이오나사 월형잉 등을 제작하며 새로운 도전에 대한 불안을 완화하고 복잡한 생각을 비우며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참여한 청년들에게는 매월 3회차 과정에서 전문적인 ‘1:1 심층 상담’이 공통적으로 제공된다. 이를 통해 참여한 청년들이 인사이동카드와 애센셜 오일 시향, 타로카드 등을 활용해 현재의 심리 상태를 면밀하게 탐색하며, 내면의 욕구와 갈등을 심도 있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자아를 재발견하고 성취감을 경험함으로써 지역사회 속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은주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장은

전주형 청년 마음치유 상담 프로그램
청춘 와락 (樂)! 안내

- 운영기간 : 2026년 3월~11월, 총 9기, 기수별 4회 과정(주 1회)
- 모집기간 : 매월 20일부터 ~ 모집 완료 시 • 신청결과 개별 문자 발송
- 모집대상 : 전주시 청년, 18세~39세 / 매월 10명(신청순) / 무료
- 운영장소 : 청년이음전주(완산구 현무길 31-5)
- 상담내용 : 기수별 1:1 심리상담(1회) 및 마음치유 프로그램(3회)
- 신청방법 : 전주시 누리집 세션 / 전주청년센터 공지사항 참고
- 문의전화 : 063-281-8763(전주시청 청년협력과)

프로그램	운영 일정	인원	주요 내용
원예치유(3월)	10, 17, 24, 31(화) 14:00~16:00	10명	마음에 피는 정원 (1) 꽃바구니 만들기 (2) 수경식물 만들기 (3) 1:1 심리상담(아로마, 타로) (4) 치유정원 만들기
아로마 치유(4월)	10(목) / 14, 21, 28(화) 14:00~16:00	10명	청년, 향기를 나를 편안하게 한다 (1) 향취유형별 향기 추출하기 (2) 낭만의 향수 만들기 (3) 1:1 심리상담(아로마, 타로) (4) 맞춤형 향수 만들기
마크라메 공예 치유(5월)	6, 13, 20, 27(수) 14:00~16:00	10명	나를 만나는 시간 (1) 링스 도어벨 만들기 (2) 드림캐처 만들기 (3) 1:1 심리상담(아로마, 타로) (4) 월형잉 만들기
원예치유(6월)	9, 16, 23, 30(화) 19:00~21:00	10명	마음에 피는 정원 (1) 꽃바구니 만들기 (2) 수경식물 만들기 (3) 1:1 심리상담(아로마, 타로) (4) 치유정원 만들기
아로마 치유(7월)	7, 14, 21, 28(화) 19:00~21:00	10명	청년, 향기를 나를 편안하게 한다 (1) 향취유형별 향기 추출하기 (2) 낭만의 향수 만들기 (3) 1:1 심리상담(아로마, 타로) (4) 맞춤형 향수 만들기
마크라메 공예 치유(8월)	4, 11, 18, 25(화) 19:00~21:00	10명	나를 만나는 시간 (1) 링스 도어벨 만들기 (2) 드림캐처 만들기 (3) 1:1 심리상담(아로마, 타로) (4) 월형잉 만들기
원예치유(9월)	8, 15, 22, 29(화) 14:00~16:00	10명	마음에 피는 정원 (1) 꽃바구니 만들기 (2) 수경식물 만들기 (3) 1:1 심리상담(아로마, 타로) (4) 치유정원 만들기
아로마 치유(10월)	6, 13, 20, 27(화) 14:00~16:00	10명	청년, 향기를 나를 편안하게 한다 (1) 향취유형별 향기 추출하기 (2) 낭만의 향수 만들기 (3) 1:1 심리상담(아로마, 타로) (4) 맞춤형 향수 만들기
마크라메 공예 치유(11월)	3, 10, 17, 24(화) 14:00~16:00	10명	나를 만나는 시간 (1) 링스 도어벨 만들기 (2) 드림캐처 만들기 (3) 1:1 심리상담(아로마, 타로) (4) 월형잉 만들기

2026 전주형 청년 마음치유 상담 프로그램 ‘청춘와락(樂)’

“청춘와락(樂)은 단순한 상담 서비스의 차원을 넘어, 청년들이 스스로 마음의 근육을 키우고 지랄할 힘을 북돋아 주는 성장 동반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위로와 활력을 줄 수 있는 체계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전주를 청년이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매월 20일부터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 또는 전주청년온라인플랫폼 ‘청정지대’(youth.jonju.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1-8763)로 문의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

전주시가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출산 장려를 위한 사업으로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하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성 육아휴직자로,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전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고용노동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인 고용노동법에 따

른 육아휴직급여 특례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발급한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등의 서류를 갖춰 전주시 가족센터(덕진구 팔달로 336)로 방문하면 된다.

그 외 신청 필요 서류는 전주시가족센터 누리집(jonju.familynet.or.kr) 또는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사업 접수처인 전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해경)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위탁 운영을 맡고 있으며, △취약·위기가정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아이 돌봄 △공공돌육이나 센터 운영 등 가족유형별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가족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농업인 소득·복지 향상 집중

전주농기센터, 농업 지원사업 홍보·중점 접수 기간 운영

전주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는 봄철 농번기를 앞두고 3월 한 달 동안 농가소득 향상과 복지혜택 제공을 위해 각종 농업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및 중점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시는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각종 직불사업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면적직불금 136~215만 원/ha, 소농직불금 130만 원/농가)의 경우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전라작물 직불제 중 논에 동계작물(밀·조식료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은 오는 4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하계작물(콩·가뭄쌀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농지소재지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또한 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민 공익수당’ 신청도 함께 접수한다.

농민 공익수당은 전북특별자치도내에 1년 이상 주소와 경영체를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1인 가구 6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으로, 오는 5월 15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이와 함께 시는 농업인의 원활한 농업 활동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시는 △농업생산 효율화를 위한 농업용 중수형관정 지원사업 △이양기, 관리기 등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과수방제기 및 고소작업차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했다. 여기에 시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에 대해 보상해 주는 ‘농업인 안전보험’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농작물재해보험’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한 대인·대물 피해를 보상해 주는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을 지원해 농업인의 생산 안정을 보전해줄 방침이다.

이들 3개 보험은 농업 전 지역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농업인의 경우 전체 보험료의 80~90%를 지원받을 수 있어 부담은 10~20% 정도이다.

이외에도 시는 올해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여성농업인 문화복지를 위한 생생카드지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을 통해 농업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젊고 유능한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장려할 계획이다.

강세권 소장은 “전주시 농업인들의 농업생산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농업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농업인 소득과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와 재)전주인재육성재단은 지난 9일 재단 사무실에서 '제5기(2026년 1기) 전주시 글로벌 인재양성 영어능력 강화사업'의 개강식을 가졌다.

전주시 글로벌 인재양성 영어능력 강화사업 개강

전주시가 올해도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쳐나갈 글로벌 우수 인재를 양성키로 했다.

시와 재)전주인재육성재단은 지난 9일 재단 사무실에서 '제5기(2026년 1기) 전주시 글로벌 인재양성 영어능력 강화사업'의 개강식을 가졌다.

이 사업은 글로벌마인드와 애환심을

지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5개월 동안 회화 중심의 국내 어학연수 프로그램과 글로벌기업 및 대학을 대상으로

단기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와 재단은 공개 모집을 거쳐 총 8

명의 장학생을 최종 선발했으며, 이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개강식이 진행됐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춘계 가축방역사업' 대폭 강화한다

전주시가 전국적인 가축전염병 위기 단계 '심각' 상황에 대응해 가축 질병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2026년 춘계 가축방역사업'을 예년보다 대폭 강화해 추진키로 했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는 최근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시아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침에 맞춰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3월까지 연장하고, 행정명령(13건)과 방역기준 공고(11건)를 적극 홍보하는 등 차단방역에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특히 시는 3월 한 달간 행정명령 및 정밀감사 체계를 강화해 가금 농장 외 부인력 출입 관리 및 농장 내 차량 진입 금지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또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매주 일제 감사를 실시하고, 검사 미참여 시 과태료 부과 및 출하 제한 등 엄격한 행

정처분 조치한다. 시는 방역대책상황실 비상 대응 유지와 24시간 거점소독시설 운영, 농가 방문 시 축종별 차단방역 교육 등을 병행함으로써 전염병 유입 경로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춘계 방역사업을 위해 총 1억5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 축종별로 필요한 12종의 방역약품과 접종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스트레스 완화제를 공급한다.

시는 우제류 소규모 농가와 염소 농가에는 공수의 2명과 포화단으로 구성된 전담 접종반도 파견하며, 현재 소와 염소에 대한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 접종을 조기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을 위한 반려견 광견병 백신 접종도 오는 4월 중 전주 지역 38개 지정 동물병원에서 실시한다. 등록된 반려견을 둔 시민은 5000원의 시술료만 부담하면 선택순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권희성 기자

